

근대 초기 일본의 문명 개념 수용과 그 세속화

박양신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 **논문분야** 일본 근대사

■ **주제어** 문명, 문명개화, 개화, 후쿠자와 유키치, 메이로쿠샤, 여지지략(輿地誌略)

■ **요약문**

이 논문은 근대 초기 일본이 서구로부터 수용한 문명 개념과 그것이 일반에 전파되어 세속화되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문명 개념과 근대화의 관계에 대한 시사를 얻어 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어의 civilization이 일본에 수용되어 어떠한 용어로 번역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일본에서 civilization은 '문명개화', '문명', '개화'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중 '문명'이 다른 용어를 제압하고 일본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이어서 지식인들의 문명 개념 인식을 후쿠자와 유키치와 메이로쿠샤 동인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후쿠자와를 비롯한 지식인들에게 '문명'은 우선 인류의 발전단계에서 최고에 위치하는 단계로서 하나의 보편성을 가진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문명'은 지(知)의 진보를 원동력으로 하여 '야만'의 단계를 탈각하여 진보하는 과정이며, 인간의 안락과 품위의 진보 상태로서 그 목표는 구체적으로 '서양'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런 문명 개념은 일반인에게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세속화된다. 세계지리서를 통해 문명은 야만의 대칭 개념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문명-서구/야만-

1. 머리말

소설가 나가이 가후(永井荷風)는 1909년의 한 작품에서 당시의 일본 문명을 ‘가짜’라고 비판했다. 메이지(明治)의 문명은 “외국에 대한 천박한 허영심, 무지한 모방”에서 비롯되었으며, “전체가 허영심 위에 모양새 좋게 건설된 것”이라고 꼬집었다.¹⁾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도 1911년의 한 강연에서 일본의 ‘개화’는 ‘내발적’ 개화가 아니라 밖에서 가해진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외발적’ 개화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개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오히려 경쟁에 대한 불안으로 ‘야만시대’보다 더 행복해졌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²⁾

둘의 비판의 관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메이지 시대가 끝나갈 무렵 일본 사회에서는 그간 쌓아 온 근대 문명을 외형적, 피상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는 소리가 드높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비판하는 ‘문명’이나 ‘개화’는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 사회에 서구로부터 수용된 개념에서 출발하여 일본 사회에 정착한 개념이다. 수용된 당초는 ‘문명개화’라 하여 일종의 시대정신으로 높이 구가되고 있었다.

“단발한 머리를 두드려 보면 문명개화의 소리가 난다”라는 속요가 『新聞雜誌』에 실린 것은 1871년의 일이다. 메이지 신정부가 수립된 지 4년째, ‘문명개화’는 서구를 모델로 급속히 근대 국가로의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식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민간에 유포되었다. 이 ‘문명개화’라는 말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西洋事情』 외편(1867)에서 civilization을 ‘세

아프리카’라는 식으로 시간적 단계가 지리적 공간과 결합된 형태로 인식되게 된다. 한편 대중계몽서 속의 문명은 정부의 개혁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풍속개량과 근대화 정책이 바로 ‘개화(civilization)’라는 인식을 성립시켰다.

이와 같은 일본 근대 초기 문명 개념에서 특징적인 것은 문명이 대단히 긍정적인 가치로서 칭양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의 문명 개념이 바로 서양을 목표로 근대 국가 수립을 추진해 가고 있던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1) 永井荷風, 「新歸朝者日記」, 福田恒 編, 1965, 『現代日本思想大系 32—近代の思想』, 筑摩書房, 77쪽.

2) 夏目漱石, 「現代日本の開化」, 猪野謙二 編, 1984, 『明治文學全集 55—夏目漱石集』, 筑摩書房, 319~323쪽.

상의 문명개화'라는 표제어로 번역한 것이 그 최초로 알려져 있다.³⁾ 그런데 후쿠자와는 같은 책에서 '문명', '개화'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 후 일본사회에서는 '문명개화' '문명' '개화'가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게 된다.

종래 일본근대사 연구에서 '문명개화'라 하면 근대 초기의 한 시대를 표상하는 용어로서, 대개 '문명개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정부의 근대화 정책—특히 사회, 경제, 문화면—을 그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⁴⁾ 이 연구에서는 좀 각도를 달리하여 '문명개화'를 '문명', '개화'와 더불어 서양의 civilization의 번역 개념—물론 순전한 번역만은 아니고, 에도 시대의 언어 습관과 접속된 측면도 포함—이라는 관점에서 그 개념 자체에 주목하여 수용 당시의 의미와 그 전파 양상, 세속화되었을 때의 함의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⁵⁾

3) 石井研堂, 『増補改訂明治事物起原』(1944), 明治文化研究會 편, 1969, 『明治文化全集 別卷—明治事物起原』, 日本評論社, 55쪽. 이 점은 그 후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아울러 『西洋事情』 외편은 초판과 달리 영국인 챔버스 형제의 『政治經濟學教本』(William and Robert Chambers, 1852,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for private instruction)의 전반부를 번역한 것이다.

4) '문명개화'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후반 이후 메이지문화연구라는 형태로 주로 자료수집에 역점을 두면서 시작되었고, 1930년대 후반 이후 전 시기에는 매우 시사적인 관점—서양비판의 일환—에서 논란되었다. 학문적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木村毅, 1954, 『文明開化』, 至文堂; 林屋辰三郎 편, 1979, 『文明開化の研究』, 岩波書店; ひろた・まさき, 1980, 『文明開化と民衆意識』, 青木書店; 井上勳, 1986, 『文明開化』, 教育社; 飛鳥井雅道, 1985, 『文明開化』, 岩波書店; 奥武則, 1993, 『文明開化と民衆: 近代日本精神史斷章』, 新評論; 松尾正人 편, 2004, 『明治維新と文明開化』, 吉川弘文館 등을 들 수 있다.

5) 메이지 시대의 문명담론에 대한 연구는 후쿠자와를 비롯한 여러 논자들의 문명론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이하 관련 부분에서 인용). 그중에서 문명 개념 자체를 다룬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柳父章, 1995, 『文化』, 三省堂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앞서 든 연구서들 즉 木村毅와 井上勳의 앞의 책의 서장에서 일부 '문명개화' 개념을 다루고 있다. 메이지 시대 문명론의 흐름에 대해서는 함동주, 2004, 「근대 일본의 문명론과 그 이중성—청일전쟁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근대 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참조.

이하 본문에서는 메이지 시대 초기로 시기를 한정하여, 우선 영어의 civilization이 일본에 수용되어 어떠한 용어로 번역, 이해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이어서 당시 양학자(洋學者)라 불렸던 지식인들의 문명 개념을 후쿠자와 유키치와 메이로쿠사(明六社) 동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다음으로는 문명 개념이 일반인으로 전파되어 세속화되는 양상에 대해 그 경로를 이루고 있는 세계지리서와 대중계몽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근대 초 일본의 문명 개념의 특징을 제시하기로 한다. 근대 초 '문명개화'의 변성은 일본의 근대 국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문명 개념 수용의 특징을 검토하는 것은 일본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2. civilization의 번역어—문명개화, 문명, 개화

메이지 시대에 문명을 뜻했던 '문명개화'라는 말은 앞서 언급했듯이 후쿠자와가 『西洋事情』 외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영국인 챔버스 형제의 『정치경제학교본』의 전반부를 번역한 이 책에서 '세상의 문명개화'라고 번역한 곳의 원문은 'civilisation'이다. 이에서 비롯되어 civilization은 메이지 시대 초기에 주로 '문명개화'⁶⁾로 번역되어 시대의 유행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후쿠자와는 '세상의 문명개화'라는 표제어의 설명문에서 '문명

6) 메이지 시대 초기의 저술에서는 '문명개화'가 영어의 civilization의 번역임을 밝히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예컨대 西村茂樹, 「西語十二解」, 『明六雜誌』 36(1875. 4), 明治文化研究會 편, 1968, 『明治文化全集 第5卷—雜誌篇』, 日本評論社, 230쪽; 北川藤太, 1878, 『日本文明史』, 京都: 北川藤太, 3쪽 등.

개화뿐만 아니라 ‘문명’, ‘개화’라는 번역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즉 “인생은 망매(莽昧)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문명개화로 나아간다”, “세상이 문명으로 나아감에 따라...”, “세상의 개화를 추진하는 법칙을 세워...” 등의 용례가 보이는데,⁷⁾ 여기서의 문명개화, 문명, 개화에 해당하는 원문은 모두 ‘civilisation’이다.⁸⁾ 즉, 후쿠자와는 영어의 ‘civilisation’을 문명개화, 문명, 개화의 세 용어를 적절히 섞어서 번역했던 것이다. 그 후도 메이지 시대에는 ‘문명개화’, ‘문명’, ‘개화’⁹⁾가 의식적인 구분 없이 civilization의 번역어로서 혼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1907년에 발간된 일영사전을 살펴보면 ‘문명’, ‘문명개화’, ‘개화’가 모두 civilization으로 영역되어 있다.¹⁰⁾

‘문명’은 본래 중국의 『易』에 나오는 ‘천하문명(天下文明)’에서 비롯된 용어로, “문채(文采)가 있어 빛남”, “덕이나 교양이 있어 훌륭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주로 개인의 ‘文’의 교양이나 그 성과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¹¹⁾ 일본에서도 ‘문명’은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연호(1469~1487)로 사용된 적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이전부터 존재한 단어이다. 그런데 메이지 초기의 사전에 대체로 ‘훌륭함’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¹²⁾ ‘문명’은 civilization의 번역어로 정착하기 이전

에는 일본에서도 중국에서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종래 ‘문명’이 갖고 있던 ‘훌륭함’이라는 의미가 후쿠자와에게 ‘문명개화’라는 번역어를 창안하게 만드는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한편 ‘개화’라는 용어는 한어에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그다지 익숙한 단어는 아니었으며, 일본에서도 근대 이전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로 알려져 있다. 그 대신 에도 시대(1603~1867)에 많이 사용되던 ‘開ける’ (히라케루)라는 일상어의 한자어화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開ける’란 번역하면 ‘열리다, 트이다, 깨이다’의 의미로, 에도 시대의 변화해 가는 사회상을 표상해서 즐겨 쓰던 동사라고 한다. 따라서 메이지시대 초기 사람들이 ‘개화’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다수가 이미 알고 있던 ‘開ける’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이다.¹³⁾ 식자층보다는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계몽적 서적의 서명에 ‘개화’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것은 종래의 ‘開ける’에는 인류 역사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불가역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메이지 시대의 ‘개화’와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¹⁴⁾ 메이지 초기 ‘문명개화’의 ‘개화’ 개념은 서양의 문명 개념의 세속적 표현으로, 어디까지나 서양 문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7) 福澤諭吉, 1989, 『西洋事情』 외편, 『福澤諭吉選集』 1, 岩波書店, 172~173쪽.

8) Hiroshi Mizuta (ed.), 1999, *Western economics in Japan: the early years*, Bristol, UK: Thoemmes Press, vol.3—William and Robert Chambers(1852),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for private instruction, pp.6~7.

9) 西周, 1870, 『百學連環』의 총론에는 ‘mental civilization’ 옆에 ‘마음의 개화’라는 음을 달아온 곳(大久保利謙 편, 1967, 『明治文學全集3—明治啓蒙思想集』, 筑摩書房, 50쪽)과 “지금 서양의 역사는 Civilization 즉 開化를 목적으로 하고, 이에 기초해 서술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같은 책, 60쪽).

10) 山口造酒・入江祝衛 편(1907), 『和英新辭典』, アーサー・ロイド 역, 賞文館.

11) 柳父章, 1995, 『文化』, 三省堂, 21쪽, 28쪽.

12) 郷正明・飛田良文 편, 1986, 『明治のことば辭典』, 東京堂出版, 520쪽에 의하면 『新令字解』

(1868), 『日誌字解』(1867), 『新撰字解』(1872)를 비롯해 늦게는 1876년에 출간된 『增補漢語字引大全』에서 모두 ‘훌륭함’으로 풀이되어 있다.

13) 渡辺浩, 1998, 「『進歩』と『中華』—日本の場合」, 『アジアから考える5—近代化像』, 東京大學出版會, 154~158쪽. 이 시기에 문명개화를 논하는 글들 속에는 ‘開ける’라는 동사가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다.

14) 渡辺浩, 1998, 앞의 논문, 158쪽; 井上勳, 1986, 앞의 책, 18쪽. 후자에서는 그것을 ‘역사의식의 결여’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civilization과 그를 둘러싼 번역 상황을 당시의 영일사전을 비롯한 사전류를 통해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세기 말까지도 영일 사전에서 civilization은 ‘개화, 교화’라는 번역이 보다 일반적이다.¹⁵⁾ 이는 메이지 초기 식자들에 의해 ‘문명개화’가 civilization의 번역어임이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개화’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던 정황을 말해 준다. 1885년에 출간된 한 사전에서 civilization에 비로소 ‘문명, 개화’라는 설명이 등장하지만,¹⁶⁾ ‘문명, 개화, 교화’라는 설명이 안정적으로 영일사전에 등장하는 것은 1900년대에 들어선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초의 근대적 일본어사전으로 꼽히는 『言海』(1889~1891)에는 표제어 중에 ‘문명’은 들어 있으나 ‘개화’는 없다. 그 대신 ‘문명’에 대한 설명에서 “문학, 지식, 교화, 잘 열려 정치가 매우 올바르고 풍속이 훌륭함”이라고 서술한 뒤, ‘문명개화’라는 성어를 용례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¹⁷⁾ 1907년에 발간된 또 다른 대표적인 일본어사전 『辭林』에도 마찬가지로 ‘개화’라는 표제어는 없는 대신, ‘문명’에 대한 설명에서 그와 연관된 용례로서 ‘문명개화’를 제시하고 “‘문명’과 같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¹⁸⁾ 이는 곧 1880년대 말 이후 ‘개화’라는 단어는 이미 사회적으로 그 생명을 다해가 단지 ‘문명개화’라는 성어로서만 그 잔영을 남기게 되었고, 시간이 더 흘러 20세기에 접어들면 그나마 ‘문명개화’도 ‘문명’에게 그 자리를 내어 준 것을 시사하고 있다.

15) 堀達之助, 1869, 『改正増補英和對譯袖珍辭書』, 藏田屋清右衛門에서는 ‘예의바름, 개화함’으로 나오며, 柴田昌吉, 子安峻 편, 1873, 『英和字彙』, 日就社에서 ‘개화, 교화’라고 나온 뒤 번역이 오래도록 유지된다.

16) ノア・ウエグストル(1885), 『英和對譯辭典』, 早見純一 역, 大阪國文社; 小山篤敘 편역, 1885, 『學校用英和字典』, 小山篤敘 등.

17) 大槻文彦 편, 1889~1891, 『言海』, 大槻文彦, 905쪽.

18) 金澤庄三郎 편, 1907, 『辭林』, 三省堂, 1385쪽.

실제로 메이지 시대에 출간된 책 중 서명에 ‘개화’가 들어간 대중계몽서는 주로 1880년대 말까지가 주를 이루고, 그 이후가 되면 ‘개화’가 서명에 들어간 서적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반면 서명에 ‘문명’이 들어간 서적은 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⁹⁾

이상에서 본 것처럼 ‘문명개화’라는 기표로 메이지 시대 초기에 유행했던 문명의 개념은 각기 ‘문명’과 ‘개화’로도 표현되어 이들 번역어 사이에 경합이 이루어졌으며, 1880년대 말 이후에는 그중 ‘문명’이 civilization의 개념어로서 일본 사회에 정착해 가게 되는 전개를 보인다. 그에 따라 문명 개념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도 변화가 보여, 이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초기의 ‘문명개화’나 ‘개화’로 논해질 때의 문명 개념은 서구 문명화의 함의를 강하게 띠고 있었으나, ‘문명’으로 정착된 문명 개념은 서구 문명의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복수의 ‘문명’으로서의 함의도 갖게 된다.

다음 장 이하에서는 메이지 초기의 식자층과 세간에서의 문명 개념 인식에 대해 차례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추출해 가기로 한다.

3. 지식인의 문명 개념

1)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 개념

개국(1854년) 이후 막부가 붕괴되기까지의 시기에 세 번이나 서양을 직

19) 일본국회도서관 장서검색에서 키워드 ‘문명’과 ‘개화’로 검색했을 경우, ‘문명’의 결과는 1860~1880년 39건, 1881~1890년 48건, 1891~1900년 31건, 1901~1910년 70건으로 뒤로 갈 수록 서서히 증가 추세인 데 비해 ‘개화’의 경우는 1860~1880년 260건, 1881~1890년 202건, 1891~1900년 22건, 1901~1910년 3건으로 1890년대 이후 급감하고 있다.

접 견문할 기회를 가졌던 후쿠자와는 『西洋事情』(1866)을 비롯한 여러 계몽적인 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서양을 일본에 소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개념들이 후쿠자와의 손을 거쳐 일본에 수용되는데, 문명 개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후쿠자와가 『西洋事情』 외편에서 처음 소개한 ‘문명개화’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를 살피건대 인생은 망매(莽昧)에서 시작하여 점차 문명개화로 나아간다. 망매불문(莽昧不文)의 세상에서는 예의의 도가 아직 행해지지 않아 사람들이 스스로 혈기를 제어하거나 정욕을 억누를 수 없다. 大는 小를 범하고, 強은 弱을 학대하며, 자신의 처 보기를 노비처럼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무도(無道)로 제어해도 이를 말리는 자가 없다. 또한 세간에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적고 교제의 도(道)가 심히 좁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 일반을 위해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세상이 문명으로 나아감에 따라 이 풍속도 점차 멈추어, 예의를 존중하고 정욕을 억제하며 小는 大의 도움을 받고, 弱은 強의 보호를 받으며 사람들이 서로 믿어 사사로움을 돌아보지 않고 세간 일반을 위해 편리를 도모하는 자가 많다.²⁰⁾

즉, ‘문명개화’의 세상이란 ‘예의의 도’가 서지 않은 자연상태에 있던 세상에서 벗어나 예의를 존중하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며 상호 신뢰 속에 세상을 위해 편리를 도모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명은 ‘망매’에서 진보한 상태로 묘사되고 있다.

그 뒤로 후쿠자와는 1875년에 저 유명한 『文明論之概略』을 출간하여 문

20) 福澤諭吉, 1989, 『西洋事情』 외편, 앞의 책, 172쪽.

명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문명론은 동시대 지식인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²¹⁾

후쿠자와의 문명론은 한 마디로 외형적인 문명보다는 문명의 기저에 흐르는 정신을 강조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는 『文明論之概略』의 서언에서 “문명론이란 인간의 정신발달에 관한 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²²⁾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文明論之概略』은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기조(François P. G. Guizot, 1787~1874)의 『유럽문명사』(프랑스 원서 1828, 영역본 1841)와 영국의 역사가 버클(H. T. Buckle, 1821~1862)의 『영국문명사』(1857~1861)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²³⁾ 기조는 『유럽문명사』에서 가치의 다양화와 권력의 분산이 역사 진보의 요건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의 밑바탕에는 합리주의와 이성의 진보를 강조하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18세기 계몽주의의 진보관은 인간 지성의 진보와 증대를 사회의 진보와 결부시켜 파악하는 것이 특색으로서, ‘몽

21) 후쿠자와 자신의 기억으로는 이 책의 판매부수가 ‘몇 만 부의 많은 부수’에 달했다고 한다(『福澤諭吉全集緒言』, 1958, 『福澤諭吉全集』 1, 岩波書店, 60쪽). 『學問のすずめ』(1872~1876)는 1~17편이 각 편마다 20만 부, 합계 340만 부가 발매되었다고 하니(같은 책, 18쪽), 그에 비하면 적지만 당시의 수준에서 ‘몇 만 부’는 상당한 수량이라고 볼 수 있다.

22) 福澤諭吉, 1988, 『文明論之概略』, 岩波文庫, 9쪽.

23) 神山四郎, 1989, 『解説』, 『福澤諭吉選集』 4, 岩波書店, 333~334쪽. 기조와 버클의 영향에 대해서는 神山四郎, 1986, 『ギゾーとバックルの間—『文明論之概略』の歴史哲學』, 『福澤諭吉年鑑』 13; 丸山眞男, 1986, 『文明論之概略を讀む』 上, 岩波書店, 229~231쪽 참조. 기조와 버클의 이 두 책은 도쿄대학,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등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등 당시 식자층에 널리 읽혀 메이지 시대 문명 개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게이오기주쿠에서는 버클 연구 때문에 당시 일고 있던 성경 연구 열풍이 사라졌을 정도였다고 한다(清原眞雄, 1944, 『増訂日本史學史』, 中文館書店, 202쪽). 이 책들은 1875년에 정부인 太政官 번역국의 주도로 기조의 책이 室田充美 역, 『西洋開化史』 上·下(印書局)로, 버클의 책이 大島貞益 역, 『英國開化史總論』(印書局)으로 번역되었고, 1877년에는 永峰秀樹 역, 『歐羅巴文明史』(奎章閣)와 1879년에는 土居光華, 董生奉三 역, 『英國文明史』(寶文閣)가 각각 민간에서도 번역 간행되었다. 1879년에는 기조의 『프랑스문명사』도 번역되었다(藤田喜三郎 역, 『佛蘭西文明史』, 和樂堂).

때'에서 '개명'으로라는 도식을 성립시키고 있다.²⁴⁾

한편, 버클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역사에 도입하여 법칙사관을 수립하려는 시도를 한 인물로서, 문명의 진보는 도덕행위보다는 지적행위의 진보에 의해 가능하며, 기후, 토지, 음식 등의 자연조건이 인간의 지적 진보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버클이 활동하던 19세기 영국에서는 빅토리아조 사회(나아가 서구 사회)를 진보의 도달점으로 보고, 유럽 이외의 산업화가 진전되지 않은 사회를 발전단계에서 낮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단선적 발전단계설이 만연해 가게 된다. 버클도 이러한 조류의 형성에 기여한 인물로, 그는 앞서 지적한 역사발전에서의 자연조건의 강조를 야만, 반개(半開), 문명의 진보단계와 결합시켜 제시했다.²⁵⁾

이처럼 서로 배경을 달리하는 이 두 저서에 공통된 것은 역사를 지적, 합리적 진보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역사관이다. 『文明論之概略』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도 바로 이 문명=진보에 대한 신념이다. 그럼 『文明論之概略』에 나타난 후쿠자와의 '문명'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²⁶⁾

첫째 후쿠자와는 '문명'은 인류가 마땅히 경과해야 할 단계의 정점에 위치하는 단계이며, 그 자체도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인식한다. 후쿠자와는 인류의 발전단계로서 야만, 반개(半開), 문명의 세 단계를 제시하고, 이는 "인류가 마땅히 경과해야 할 단계이다. 혹은 이를 문명의 나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설명한다.²⁷⁾ 즉, 후쿠자와는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단계를 인류 역사의 보편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야만'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24) 丸山眞男, 1986, 『文明論之概略を讀む』上, 岩波書店, 95~96쪽.

25) P. J. Bowler(1995), 『進歩の發明』, 岡崎修 역, 平凡社, 제1장 참조.

26) 『文明論之概略』에서의 문명론에 대해서는 박양신, 2001,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에 있어서의 문명과 독립」, 『한양일본학』 9(2001. 2), 제3장 참조.

27) 福澤諭吉, 1988, 앞의 책, 24쪽.

거처가 일정치 않고 먹는 것도 일정치 않다. 편리를 위해 무리를 이루지만, 그 편리함이 사라지면 곧 흩어져 버린다. 혹 거처를 정해 농업과 어업을 영위하고, 먹고 입는 게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계를 만들 줄 모른다. 문자가 없지는 않으나 문학이라는 것은 없다. 자연의 힘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은위(恩威)에 의지해 우연한 회복을 기다릴 뿐 자기 스스로 방법을 찾는 법이 없다.²⁸⁾

반면 '문명'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천지간의 사물을 규칙 안에 지배하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사람의 기풍이 쾌활하고 구관습에 현혹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 몸을 지배하고 남의 은위(恩威)에 의지하지 않는다. 스스로 덕을 닦고 지식을 연마하며, 과거를 흠모하지 않고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다. 작은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대성할 것을 꾀하여, 나아가 물러섬이 없고 달성하고도 멈추지 않는다. 학문은 허문이 아니라 발명의 기초를 열고, 공상(工商)은 날로 번성해 행복의 원천을 깊게 한다. 인지(人智)는 오늘날 사용하고도 얼마간을 남겨 훗날을 도모한다.²⁹⁾

즉, 자연과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산업이 번성하며 덕과 지식의 축적으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진보해가는 상태를 '문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후쿠자와는 야만, 반개, 문명의 세 단계가 각기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야만은 반개로, 반개는 문명으로, 문명 또한 더욱 진보해 나가

28) 위의 책, 25쪽.

29) 위와 같음.

야 한다며 현 문명 상태의 상대화를 피한다.³⁰⁾ 그런 의미에서 후쿠자와가 말하는 ‘문명’은 현저하게 ‘문명화’의 함의를 띠게 된다. 후쿠자와는 “문명은 상대적인 말로 그 도달하는 곳에 한계가 없다. 다만 야만의 상태를 벗어나 점차 진보함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럽 문명이 현재 세계의 인지로서 도달할 수 있는 정상의 위치에 있으므로 문명의 진보를 피하는 자는 유럽의 문명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²⁾ 즉, 후쿠자와가 주장하는 ‘문명’은 구체적으로는 ‘서양 문명’, 즉 서구화의 함의를 띠는 것이었다. 세간의 ‘문명개화’가 문명화=서구화의 함의로 유행하게 된 것도 이런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후쿠자와는 문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협의의 문명은 “인력으로 공공연히 인간의 수효를 증가시키고, 의식주의 허식을 많이 한다는 의미”이며, 광의의 문명은 “의식주의 안락뿐만 아니라 지(智)를 연마하고 덕을 닦아 인간을 고상한 지위에 오르게 한다는 의미”로서 인간사회는 모름지기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 그는 또 이를 부연하여 문명이란 영어의 ‘시빌리제이션’인데, “인간교제(사회-인용자)가 점차 개량되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형용한 말로, 야만 무법의 독립과 달리 일국의 체제를 갖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³⁴⁾ 이어서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문명의 요소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의식주의 안락, 지덕(智德)의 발달, 자유, 진보, ‘만인동권(萬人同權)’, 사회와 전체의 공리(公利)에 대한 배려 등이다.³⁵⁾ 후쿠자와는 종합적으로 “문명이란 인간의 안락

30) 福澤諭吉, 1988, 앞의 책, 26쪽.

31) 위의 책, 51쪽.

32) 위의 책, 27쪽.

33) 위의 책, 51쪽.

34) 위와 같음.

35) 福澤諭吉, 1988, 앞의 책, 52~54쪽.

과 품위의 진보를 말한다. 인간의 안락과 품위를 얻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지덕이므로 문명이란 결국 인간의 지덕의 진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³⁶⁾라며 이후 지덕론을 전개해 간다. 즉, 후쿠자와의 문명 개념은 “인간의 안락과 품위의 진보”, 나아가 “지덕의 진보”를 그 핵심에 두고 있다.

그런데 지와 덕 중에서도 그가 문명의 핵심으로 생각한 것은 ‘지(intellect)’의 진보였다. 그는 종래 일본에 만연되어 있던 덕의라는 것은 일신을 수양하는 데 머물러 문명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다고 배격한다. 따라서 덕의가 넘쳐나는 일본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력’임을 후쿠자와는 강조했던 것이다.³⁷⁾ 이 점은 그가 『학문의 권장』에서 인민의 지적 수준의 향상을 강조하여 ‘실학’—서양학문—의 학습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 후쿠자와가 문명의 요소로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는 자유이다. 후쿠자와의 자유론은 “자유는 기풍은 오직 다사쟁론(多事爭論) 중에 존재한다”³⁸⁾는 명제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다양한 요소와 가치가 각축하는 가운데서 자유는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후쿠자와가 기초의 『유럽문명사』에 의거해 서술한 서양문명의 유래에서 그 특징으로 꼬집어 낸 것인데, “서양 문명이 다른 문명과 다른 바는 인간의 교제에서 그 설이 획일적이지 않고 여러 설들이 서로 병립하여 화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³⁹⁾ 이에 반해 일본은 ‘권력의 편중’이 지속되어 온 역사이며 현재도 그런 요소는 강하게 잔존해 있다는 것이 후쿠자와의 판단이었다. ‘권력의 편중’은 여러 가치와 힘의 균형 속에서나 생겨나는 자유의 발생을 저해하

36) 위의 책, 55쪽.

37) 위의 책, 제6장 「지덕의 판별」에 의함.

38) 위의 책, 34쪽.

39) 위의 책, 167쪽.

기 때문에 타파되어야 할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후쿠자와의 문명 개념을 정리하자면, 문명은 야만을 탈각하여 진보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인간의 안락과 품위의 진보”로서 그 기저에는 ‘지덕’, 특히 ‘지의 진보’가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문명의 진보는 ‘자유’의 발전과정이라는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어, ‘권력의 편중’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에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 바로 문명화인 것이다.

그런데 후쿠자와는 『文明論之概略』의 마지막 장에서 현재 대외관계가 낳은 서양과의 불평등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뒤 “오늘날 일본인을 문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일본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나라의 독립은 목적이며 국민의 문명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⁴⁰⁾라고 주장하였다. 즉, 후쿠자와가 서양문명을 목표로 한 문명화를 주장한 것은 국가 ‘독립’이라는 목적 때문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이어서 살펴볼 메이로쿠샤 동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

2) 메이로쿠샤 동인의 문명 인식

1873년에 결성된 메이로쿠샤(明六社)는 초대 미국 공사직을 마치고 귀국한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의 제창에 의해 결성된 양학자들의 학술결사였다. 그 회원으로는 후쿠자와를 비롯해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니시 아마네(西周), 쓰다 마미치(津田真道),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등 당대의 내로라는 양학 지식인을 망라하고 있었다. 이들

40) 위의 책, 259쪽.

은 막말, 유신기에 난학(蘭學), 영학(英學) 등 서양 학문을 배운 경험을 갖고 있으며, 막부의 양학기관인 번서조소(蕃書調所) 혹은 양서조소(洋書調所)에서 일하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이후도 관료로서 정부에 관여한 인물이 많다.⁴¹⁾ 메이로쿠샤 동인들은 월 2회의 정례회를 통해 연설 활동을 벌이고, 이듬해부터는 『明六雜誌』를 창간하여 지면을 통한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明六雜誌』의 글들을 통해 그들의 문명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메이로쿠샤의 제창자였던 모리 아리노리는 ‘개화’에 대해 인류의 발전 과정을 더듬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야만’이라 칭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단계에서 앞으로 나아가면 수렵과 농경을 할 줄 알고, 일을 통해 얻은 바를 사유(私有)로 인정하는 ‘반화(半化)’의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를 극복하고 더 진보하면 사물의 이치와 조화의 묘를 깨닫고, 풍부한 사랑과 넓은 견식을 갖추게 되어 ‘개화’의 경역에 달하게 된다. ‘개화’의 단계에서는 통상이 열려 사람들의 교의(交誼)가 두터워지며, 기계가 점차 정밀해지고 공업이 품위를 높이며, 인간이 문명의 참맛을 알고, 나라는 지위를 유지하여 가경(佳境)에 이를 수 있다.⁴²⁾ 후쿠자와의 문명 3단계설과 대체로 그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사물의 이치와 조화의 묘를 깨닫는다 함은 바로 지(知)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어, 여기서도 개화의 원동력은 지식의 진보임이 전제로 깔려 있다. 지의 발달을 전제로 한 기계화, 공업화를 모리는 ‘개화’라는 개념에 담았던 것이다.

한편 니시무라는 『西語十二解』의 첫 번째로 ‘문명개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문명개화’란 영어의 ‘시빌리제이션’의 번역으로, 중국인은 이를 ‘예의로 나아감’으로 번역하지만, 일본의 속어로 번역하면 ‘인품이 좋아짐’의

41) 메이로쿠샤에 대해서는 戸澤行夫, 1991, 『明六社の人びと』, 築地書館株式會社 참조.

42) 森有禮, 「開化第一話」, 『明六雜誌』 3(1874. 4), 明治文化研究會 편, 1968, 『明治文化全集 第5卷—雜誌篇』, 日本評論社, 61~62쪽.

뜻이다. ‘시빌리제이션’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인품과 인간 상호 간의 교제”에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와 인민의 품위가 점차 향상되어 전체가 모두 안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사회와 인민의 품위가 함께 향상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시빌리제이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³⁾ 이처럼 니시무라는 사회와 개인의 ‘품위의 향상’을 문명개화의 본뜻이라고 이해했다.

『明六雜誌』에 가장 많은 글을 게재한 쓰다 마미치의 문명 개념은 제반 개량론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쓰다는 ‘개화란 어두운 밤에서 백주로 옮겨 가듯이 점차로 이행하는 것으로, 그 원동력은 종교와 학문에 있다고 말했다. 그중 학문에는 공리를 논하는 허학(虛學)과, 실물과 실상을 검토하여 이치를 설명하는 서양의 여러 학문인 실학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실학이 국내에 일반적으로 유행하여 각자가 도리(이치-인용자)에 도달하는 것을 참된 문명계”라고 하였다. 그런데 일반 인민의 진보가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구미 각국에서도 많은 세월을 요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더 요원하니 오히려 기독교를 도입하여 일본의 개화 진보를 돕자고 주장하였다.⁴⁴⁾ 이는 문명국이 되기 위해 서구처럼 기독교국이 되어야 한다는 메이지 초기의 극단적인 주장의 흐름과 맥이 닿아 있는 논의이다. 쓰다는 그 후에도 일본의 개화를 위해 외국인과의 ‘교제’를 활발히 해야 하며, 일본인의 해외 도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내지여행을 허가하여 ‘교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⁵⁾

43) 西村茂樹, 「西語十二解—文明開化ノ解」, 『明六雜誌』 36(1875. 4), 明治文化研究會 編, 1968, 『明治文化全集 第5卷—雜誌篇』, 230~231쪽.

44) 津田真道, 「開化ヲ進ル方法ヲ論ス」, 『明六雜誌』 3(1874. 4), 明治文化研究會 編, 1968, 『明治文化全集 第5卷—雜誌篇』, 65쪽. 이에 대해서는 니시 아마네가 6회에 걸친 「教門論」(『明六雜誌』 4, 5, 6, 8, 9, 12호)을 통해 정교분리를 주장하며 비판하였고, 모리도 「宗教」(『明六雜誌』 6)라는 제목의 번역글을 게재함으로써 종교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시사했다.

45) 津田真道, 「内地旅行論」, 『明六雜誌』 24(1874. 12), 明治文化研究會 編, 1968, 『明治文化全集

또한 쓰다의 문명 인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유였다. 그는 출판의 자유를 논하면서 “야만의 정치는 사람을 속박한다. 문명의 민은 속박을 면한다. 문야(文野)의 구별은 단지 민의 언행이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달렸다”고 하여 정치적 자유의 유무에서 문명과 야만의 기준을 구하였다.⁴⁶⁾ 그의 자유를 강조하는 발상은 대외 무역에 관한 입장으로도 이어져 보호주의론에 반대해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⁴⁷⁾

그런데 쓰다의 문명 인식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문명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목적의식이다. 쓰다는 2회에 걸친 「고문론」이란 글에서 고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폐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는 고문이 있으나, 같은 아프리카의 국가라도 서구 국가의 식민지가 된 국가에는 고문이 없음을 들어 고문의 존속 여부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개명’의 여부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쓰다가 여기서 고문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일본이 서양 국가가 내세우는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고문을 폐지하지 않으면 구미 각국과 동등한 조약을 맺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구미 각국과 대등해지고 싶어도 그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⁴⁸⁾ 이른바

第5卷—雜誌篇』, 171~172쪽. 당시 외국인은 조약에 의거해 거주와 행보가 거류지 내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여 거류지 밖으로 여행할 자유를 주자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이 잡지 제23호에는 西周, 「内地旅行」이 게재되어 외국인의 내지여행을 일본인과의 내지잡거와 더불어 순차적으로 확대해갈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후쿠자와는 일본의 문명과 인민 지력의 진보가 아직 충분한 정도에 도달하지 않아 일본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비판하였다(福澤諭吉, 1875. 1, 「内地旅行西先生ノ說ヲ駁ス」, 『明六雜誌』 26.)

46) 津田真道, 「出版自由ナランコトヲ望ム論」, 『明六雜誌』 6(1874. 4), 明治文化研究會 編, 1968, 『明治文化全集 第5卷—雜誌篇』, 80쪽.

47) 津田真道, 1874. 4, 「保護稅ヲ非トスル說」, 『明六雜誌』 5; 津田真道, 1875. 1, 「貿易權衡論」, 『明六雜誌』 26.

48) 津田真道, 「拷問論ノ一」, 『明六雜誌』 7(1874. 5), 明治文化研究會 編, 1968, 『明治文化全集 第5卷—雜誌篇』, 91쪽.

‘문명국’의 기준에 일본이 맞춰야지만 현 불평등조약의 개정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서구와 동등한 독립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후쿠자와가 문명화의 현 단계에서 서양 문명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그 이유를 국가 독립에서 구했던 문제의식을 쓰다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계몽사상가에게서 공유된 의식이었다.

쓰다는 니시 아마네와 더불어 근대 최초의 유학생으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한 인물이다. 그의 사상 편력은 메이지 초기 양학자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먼저 한학을 배운 뒤에 난학, 영학 등의 서양 학문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쓰다의 경우 특이한 것은 이에 덧붙여 ‘국학(國學)’을 공부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의 초기 사상에는 국학적 요소가 짙게 감지된다.⁴⁹⁾ 이렇듯 국학을 학문적 토대의 일부로 삼고 있는 지식인조차도 ‘문명개화’에 적극적일 만큼 근대 초기 일본의 서양 문명 수용은 전폭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명 개념의 세속화

1) 세계지리서 속의 문명

앞 장에서 서술한 지식인들의 문명 개념은 일반 대중에게는 보다 세속화된 내용으로 전파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후쿠자와의 『西洋事情』이나 『학문의 권장』, 『文明論之概略』을 직접 읽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널리 문

49) 이에 대해서는 前田勉, 2007. 3, 「津田真道の初期思想」, 人文社會科學 編, 『愛知教育大學研究報告』 56 참조.

명 개념을 전파한 매체는 바로 세계지리서와 대중계몽서라고 생각된다.

후쿠자와는 일반인들의 문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대중적인 계몽서를 저술하였다. 그중에서도 그가 특히 주의를 기울인 것 중의 하나가 세계지리이다. 후쿠자와는 서양에서 발간된 여러 지리서를 참조하여 1869년에 2권의 지리서를 편역, 발간하였다. 『掌中萬國一覽』(1월)과 『世界國盡』(10월)이 그것이다. 이 중 『世界國盡』은 ‘학제’ 공포(1872)로 소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전국의 데라코야(寺子屋, 한국의 서당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 습자 교본으로 쓰였으며, 자장가 대신으로도 불려 그 내용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고 한다.⁵⁰⁾ 또한 ‘학제’ 공포 후에는 새로 도입된 소학교 교육에서 뒤에서 언급할 『輿地誌略』과 더불어 교과서로 사용되었다.⁵¹⁾

먼저 『掌中萬國一覽』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蠻野文明의 구별’이라는 절이 나온다. 거기서는 인간 사회를 인간이 사는 상태에 따라 만야(蠻野)와 문명의 두 종류로 구별하고, 이를 다시 각각 두 종류씩 나누어 ‘혼돈, 만야, 미개, 문명’의 4종류로 구분한다.⁵²⁾

‘혼돈의 만’은 가장 하등한 인간으로서 수렵, 어로, 채취 생활을 하고, 조야한 모옥(茅屋)에서 거처하며 여기저기를 떠돈다. 문자나 법률도 모르는

50) 富田正文, 1992, 『考證福澤諭吉』 上, 岩波書店, 319쪽.

51) 메이지 초기의 소학교 교육은 지리 수업시간이 두드러지게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지리 과목이 문명개화에 필요한 실학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학제’가 공포될 당시는 아직 교과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부성은 민간에 유포되어 있던 도서 중에서 교과서로 적당한 것을 골라 100여 책을 예시하였는데, 그중 지리교과서 특히 세계지리 교과서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후쿠자와의 『世界國盡』(하등소학교 4~1급)과 우치다 마사오(內田正雄)의 『輿地誌略』(상등소학교 7~1급)이다(川村博忠, 2004. 1, 「明治初期の文明開化と地理教育」, 『エリア山口』 33, 12~15쪽).

52) 이런 식의 개화 정도에 따른 인류 구분은 이보다 앞서 1868년에 출간된 『明治月刊』 卷之二에서도 ‘人運開化の高下’라는 절에 나오고 있다. 거기서는 인류를 ‘문명, 개화, 반개, 이속(夷俗), 야만’의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明治文化研究會 編, 1968, 『明治文化全集 第7卷—外國文化篇』, 日本評論社, 135쪽).

무식 상태의 민을 지칭하며 중앙아프리카, 뉴기니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 이에 속한다. ‘만야의 민’은 제2등의 인간으로서 천막에서 기거하고 유목생활을 하며, 문자가 없지는 않으나 읽고 쓸 줄 아는 자가 매우 드물다. 기계는 제작이 매우 조잡하고, 법은 매우 잔혹하다. 달단(黠鞞), 아라비아, 아프리카 북방의 토인 등이 이에 속한다. ‘미개의 민’이란 교화가 널리 미치지 않고 풍속이 개량되지 않았으며, 경작과 기예가 발달하고 ‘문학’⁵³⁾도 매우 성하지만 외국인을 꺼리고 여성과 약자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터키, 페르시아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개화문명의 민’이란 예(禮)와 의(義)를 중히 여기며 재력(才力)과 정신이 영민하고, 학문과 기예가 진보하고 여러 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짐으로써 하늘의 행복을 향유하는 자를 말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게르만 등이 이에 속한다.⁵⁴⁾

이상의 설명에서 주목할 점은 야만에서 문명까지의 단계가 각 지역과 연결되어 설명됨으로써 시공간이 결합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혼돈’과 ‘만야의 지역’은 ‘뒤떨어진’ 공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같은 책에서는 야만과 문명을 인종과도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백인종은 “정신이 총명하며, 문명의 극도에 달할 만한 소성이 있다. 이를 인종 중 최고라 한다”고 하여 ‘문명’과 연결시키는 반면, 흑인종은 “신체가 강건하여 일을 열심히 하지만, 본성이 게을러서 개화진보의 맛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한다.⁵⁵⁾

53) 메이지 초기에 사용된 ‘문학’이란 개념은 literature의 의미가 아니고, 그 이전까지 일본에서 통용되었던 학문, 시문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이 literature의 번역어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1880년대 전반기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스즈키 사다미, 2001, 『일본의 문학개념』, 김채수 옮김, 보고사, 제3장, 제4장 참조.

54) 福澤諭吉, 1989, 『掌中萬國一覽』, 『福澤諭吉選集』 2, 岩波書店, 100~101쪽.

55) 福澤諭吉, 1989, 앞의 책, 99~100쪽.

이리하여 문명—백인종—유럽·미국, 야만—흑인종—아프리카라는 도식적인 개념 구도가 성립하게 된다. 이처럼 백인과 유럽을 최고위에 두고 문명의 정도에 따라 각국을 단선적으로 배치시키는 세계상은 당시 베스트셀러가 된 『世界國盡』에서도 반복된다.

『世界國盡』에서는 아프리카주 편에 “토지는 넓으나 사람은 적고, 그 적은 사람마저도 어리석어 문자를 모르고 기예도 없으며, 북부와 동부의 수 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결같이 무지, 혼돈의 세계”라고 서술되어 있다.⁵⁶⁾ 반면 유럽주 편에서는 “인민에게 향산(恒産)이 있고 부국강병하여 천하에 제일가는 문명개화의 중심”이며, “사람들의 배움이 널리 고루 미쳐 덕의를 닦고 지식을 깨치며, 문학, 기예가 그 아름다움을 다하고, 도시와 시골의 구별 없이 모든 곳에 학문소를 세우기를 수천만을 헤아려, “세계에 자랑할 만한 태평(泰平)”을 이루었다고 서술되어 있다.⁵⁷⁾ 즉 유럽은 아름다운 ‘문명’의 본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후쿠자와의 지리서와 더불어 많은 이에게 읽힌 세계지리서인 우치다 마사오(内田正雄)의 『輿地誌略』(1870~1879)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책은 후쿠자와의 『西洋事情』,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 『西國立志編』과 더불어 메이지 시대 전기의 3대 저서로 꼽히고 있다.⁵⁸⁾ 이 책의 1874, 1875년 시점에서의 인쇄부수는 약 15만 내지 20만 부를 기록하고 있다.⁵⁹⁾

56) 福澤諭吉, 『世界國盡』, 『福澤諭吉選集』 2, 岩波書店, 120~121쪽.

57) 福澤諭吉, 1989, 앞의 책, 130~131쪽.

58) 『輿地誌略』 제4편의 서언에서 편자인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는 “근년 문운이 크게 진보해 문인 학사의 저술이 무려 수천백 종에 이르나 세상에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은 후쿠자와 군의 西洋事情, 나카무라 군의 西國立志編과 이 輿地誌略을 거두로 삼는다”고 쓰고 있다(『輿地誌略』 제4편 제10권, 1877, 1쪽). 『輿地誌略』은 1870년에서 79년에 걸쳐 총 12권으로 간행된 지리서인데, 1876년에 우치다가 사망한 이후 제4편 3권은 니시무라가 편집하였다.

59) 増野恵子, 2006. 3, 「見える民族, 見えない民族—『輿地誌略』の世界観」, 『版畫と寫眞—19世紀後半出來事とイメージの創出』, 神奈川大學 심포지움보고서, 50쪽.

또한 이 책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난해한 자구의 독해를 위한 책들도 여럿 간행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이 책에서 우치다는 ‘개화의 등급’이라는 절에서 인류를 ‘蠻夷(사베지—원문, 이하 동일)’, ‘미개의 민(세미바르바리안)’, ‘半開의 민(하프시빌라이즈드)’, ‘文明開化의 민(엔라이텐드)’의 네 등급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명명하는 방식은 다소 다를지라도 구조는 『掌中萬國一覽』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엔라이텐드’를 ‘문명개화의 민’으로 번역하고 있는 점이다.⁶¹⁾ 이를 통해 ‘문명개화’에는 계몽(enlightenment)의 함의도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메이지 시대에 enlighten 혹은 그 명사형 enlightenment가 ‘개화, 교화, 문명’ 등의 의미로 번역된 것이 1880년대 후반의 일이고 보면,⁶²⁾ 여기서 우치다가 ‘엔라이텐드’를 ‘문명개화의 민’으로 번역한 것은 해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치다는 ‘문명개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계몽, ‘개화’의 함의를 잘 포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치다는 인류 중 가장 하등한 ‘만이(蠻夷)’에 대해 “인류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지각(知覺) 또한 가장 깨이지 않았음”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는 반면, ‘문명개화의 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60) 中島滿洲夫, 1968. 11, 「內田正雄著『輿地誌略』の研究」, 『地理』 13-11, 32쪽. 자구 해설서로는 市岡正一 편, 1875, 『輿地誌略字引』, 弘學館; 飯島半十郎 편, 1878, 『輿地誌略字引』, 修靜館; 青木吉雄 편, 1879, 『輿地誌略字引』, 中村藤平; 富田卓雄 편, 1880, 『輿地誌略字解』, 盛化堂 등 수종이 있다.

61) 뒤에 우치다의 책을 저본으로 해서 옮긴 것으로 보이는 몇몇 책들에서 문명개화를 영어의 ‘엔라이텐드’라고 밝히고 있다. 東江學人, 1873, 『文明開化内外事情』 初編, 東生龜次郎, 5쪽; 東華先生 강설, 1881, 『布教泉源』, 教學部藏, 21쪽 등.

62) 메이지 시대의 영일사전에 의하면 1880년대 중반까지도 enlighten은 ‘빛나게 하다, 밝게 하다, 가르치다’ 정도로 번역되었으나, 1880년대 말 이후 그 명사형 enlightenment를 ‘개화, 교화, 문명’ 등으로 번역하게 되었다(島田豊 역, 1888, 『和譯英字彙』, 大倉書店; イーストレーキ, 1888, 『ウェブスター氏新刊大辭書和譯字彙』, 棚橋一郎 역, 三省堂 등).

상공업이 활발하고, 학술 기예가 돈독하며, 4민(에도 시대에 신분을 지칭하는 사, 농, 공, 상을 의미—인용자)이 자신의 생업에 안주하는 서구의 여러 국가 및 미합중국과 같은 나라를 말한다. 이들의 특징은 자연의 힘의 억압을 받지 않고 학술로써 이를 조성한다. 사해민국과 우의 있게 널리 교제함을 선호하고, 구법(舊法)과 문벌을 숭상하지 않으며, 현명과 학술을 귀히 여긴다. 인정과 풍속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허식이 적고 염치의 마음이 풍부하며, 법령은 명백하고 형벌은 매우 관대하다. 그 밖에도 문명국에는 확정된 헌법이 있고, 군주정부가 맘대로 영토를 사유하지 않으며, 권위로 국민을 제어하지 않는다. 그 민은 각기 獨立不羈(프리—원문)하며 군주의 노예가 아니다. 그 소유물은 그 주인에 속하고, 정부는 이를 보호하여 빼앗을 수 없다.⁶³⁾

앞서 보았던 내용에 헌법, 개인의 자유, 사유의 원칙 등을 ‘문명개화’의 요소로 더하고 있다. 우치다는 나아가 ‘문명’의 진보 상태에서도 전쟁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과거의 전쟁 형태보다 현재가 나아진 것처럼 향후 문명이 더 진보하면 전쟁 폐지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다.⁶⁴⁾ 그의 ‘문명’은 분쟁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후쿠자와와 우치다의 지리서 등에서 보이는 야만/문명의 구분이나 ‘개화의 등급’과 같은 항목은 실은 그들이 참고한 서양의 지리서 원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개 서양의 지리서에는 각 대륙별 서술에 들어가기 전 총론으로서 종합적인 자연지리나 인문지리의 지식이 서술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대륙, 바다, 면적, 인구, 기후, 천체 등인데, 그와 더불어 ‘인종’—대개 5개 인종—에 대한 설

63) 內田正雄 편, 1871, 『輿地誌略』 卷一, 文部省版, 39쪽.

64) 內田正雄 편, 1871, 앞의 책, 56쪽.

명까지는 등장하지만, '개화의 등급'과 같은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⁶⁵⁾ 따라서 일본의 세계지리서에 등장하는 '개화의 등급'과 같은 항목은 그들이 참조한 지리서 이외의 서양서적에서 따온 내용인 듯하다. 따라서 '개화의 등급'을 지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 출간된 세계지리서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된다. 이는 그만큼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 서양의 야만/문명에 대한 인식을 민감하게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면에는 후쿠자와가 『文明論之概略』에서 역설했던 문명화의 목적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輿地誌略』의 한 특징은 다수의 삽화를 삽입하여 지리의 지식을 시각화한 이미지와 더불어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삽화는 전체적으로 풍경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종이나 풍속을 전하는 삽화의 수는 각 권에 따라 편차가 있다. 그중에서도 유럽편과 아시아·아프리카편 사이의 편차가 가장 현저한데, 후자에는 인종이나 그 지역 고유 풍속을 소개하는 삽화가 풍부하게 게재되어 있으나, 전자에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도시풍경이 주를 이루고 거기에 사는 사람의 모습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유럽인을 '보는 쪽(주체)으로 상정한 시선의 결과이

65) 대표적으로 우치다가 참조한 책 J. Goldsmith(1819), *A grammar of General Geography for the Use of Schools and Young Persons*(London: Printed for Longman, Hurst, Rees, Orme and Brown, 판본 다수 존재) [일본어 역은 可德斯米, 1873, 『萬國地理啓蒙』, 望月誠 역, 和泉屋市兵衛]와 Alexander Mackay(1859), *Manual of Modern Geography: Mathematical, Physical, and Political on a New Plan Embracing a Complete Development of the River Systems of the Globe*(Edinburgh: William Blackwood)를 비롯해 여러 세계지리서에서 많이 참조하고 있는 Samuel Augustus Mitchell(1870), *A System of Modern Geography*(Philadelphia: E.H. Butler)와 Samuel Augustus Mitchell(1872~1873), *The New Primary Geography*(Philadelphia: J.H. Butler & Co.)이 둘을 함께 엮어 일본어로 편역한 것이 ミッチェル, 1886, 『萬國地誌階梯』, 松村精一郎 역, 江島伊兵衛] 등 그 어느 책을 보더라도 '개화의 등급'과 같은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1] 『萬國地理誌』에서 나는 '인민 개화의 등급'

며, 유럽편에 건축물 등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문명의 상징이자 당시의 일본에 소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필자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⁶⁶⁾

이처럼 세계지리서에 삽화가 들어가는 것은 그 밖의 지리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대체로 '야만' 지역에는 그 지역 '토민'이나 자연 배경을 그려 넣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멋진 건축물 내지 문명의 첨단물—철도, 함선, 마차 등—에 옷을 잘 차려입은 서양인을 그려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문명을 인공이 가해진 진보의 구축물로서, 야만을 자연상태 그대로의 것으로 인식하는 기제가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 예로 1877년에 발간된 『萬國地理誌』에서는 '인민 개화의 등급'을 '만이(蠻夷), 미개(未開), 반개(半開), 문명개화(文明開化)'의 넷으로 나누고(그림 1 참조),

66) 増野恵子, 2006. 3, 앞의 논문, 57~58쪽. 이 논문에 의하면 이 책에 삽입된 삽화는 지도를 제외하고 총 376점이며, 그중 반수 가까이가 프랑스의 여행잡지 *Tour du Monde*에 게재된 도판의 모사라고 한다.

그 각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다음의 삽화를 그려 넣고 있다.⁶⁷⁾ 이 삽화 속 '문명개화'의 이미지는 완전히 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치고도 남음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리서를 비롯한 메이지 초기 서양소개서를 통해 전파된 문명/야만의 인식은 차차 일본 사회 내부로도 전이된다. 즉, 문명적이지 않은 행위는 '야만'으로 규정, 규제되었다. 법령이나 신문이라는 '문명'이 '야만'을 창출하고, 부정되어야 할 일상의 일들이 '야만'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공간에서도 문명과 비연속적인 슬럼가와 빈민은 '암흑'으로 묘사되어 구제의 대상으로 치부되었던 것이다.⁶⁸⁾

2) 대중계몽서 속의 문명

일반 서민들에게 문명 개념을 퍼트리게 된 또 다른 주요 매체로 속칭 '개화본(開化本)'이라 불리는 대중계몽서가 있다. 책 제목에 '문명개화'나 '개화', '문명'이 붙은 계몽적 성격을 띤 책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류의 책 중 일부는 1872년에 설치된 교부성(教部省) 주도하에 전개된 승려와 신관(神官)에 의한 서민 교화용 도서의 대본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⁶⁹⁾

67) 須川賢久 역, 1877, 『萬國地理誌』, 須川賢久藏, 10쪽.

68) 成田龍一, 2003, 『近代都市空間の文化經驗』, 岩波書店, 제2장 「'문명/야만/암흑」 참조. 1872년 정부는 '違式違條例'를 발표하여 '야만'적인 행위를 경범죄로서 처벌하는 조치를 취했다.

69) 교부성이란 1872년 3월 종교를 관할하는 관청으로 발족한 것으로, 메이지 정부가 효과적인 민중교화의 실현과 기독교 진출의 방어를 위해 출범시켰다. 교부성은 4월에 민중교화를 담당할 교도직(教導職)을 설치하고, 교화이념의 근간인 '敬神愛國, 天理人道, 尊王遵朝'의 3條敎則을 발표하여 교화체제를 갖추었다. 신도의 신관(神官)과 불교(특히 眞宗계)의 승려가 주로 교도직을 맡아 각지에서 설교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서는 小川原正道, 2000, 3, 『教部省民衆敎化政策に關する一考察—明治 5・6年, 東京を中心に』, 『法學政治學論究』 44; 小川有閑, 2005, 『新聞・宗教・文明開化—明治初年の新聞に見る教部省政策をめぐる議論の変遷』, 『東京大學宗敎學年報』 23 참조.

이들 대중계몽서에 나타난 '문명개화', '개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 책들의 내용은 대별하여 두 가지로 수렴되는데, 하나는 의식주를 비롯한 풍속개량과 관련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을 '문명개화'의 이름하에 홍보하는 것이다.

'개화본'의 대표적인 책으로 꼽히는 가토 유이치(加藤祐一)의 『文明開化』(1873)는 풍속개량과 교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책머리에서 세간에서는 "서양인 흉내를 내든가, 귀에 새로운 일, 눈에 새로운 일, 남과 다른 일만 하면 이도 저도 모두 문명개화"라고 하나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문명이라는 것은 그 문자를 생각해 보는 게 좋다. 문(文)에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널리 배워서 전 세계의 일을 깨치고, 좋은 점을 취하여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것을 참된 문명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⁰⁾ 이어서 머리를 잘라야 하는 이치, 옷은 일하기 편하게 지어야 하는 이치, 모자와 구두는 반드시 쓰고 신어야 하는 이치, 다다미 대신 의자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육식은 꺼리지 말아야 하는 이치, 종래의 미신을 타파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설유하고 있다.

이를 설득하는 데는 몇 가지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복고(復古)의 논리이다.⁷¹⁾ 즉 머리를 단발하는 것은 외국인들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300년 전 산발(散髮)했던 일본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식의 논리이다. 일하기 편리한 통 좁은 옷도, 모자를 쓰는 것도 단순한 외국인 흉내가 아니라 역시 일본의 과거 의(衣)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득한다.⁷²⁾

70) 加藤祐一, 『文明開化』(1873), 明治文化研究會 편, 1967, 『明治文化全集 第24卷—文明開化篇』, 日本評論社, 5쪽.

71) 飛鳥井雅道, 1985, 『文明開化』(岩波書店)는 근대 일본의 문명개화는 복고(復古)의 틀을 빌려서 추진되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복고'와 '개화'가 교착되면서 메이지 유신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72) 加藤祐一, 1967, 앞의 책, 5쪽, 7쪽, 8쪽.

둘째는 편리성, 기능성의 강조이다. 통 좁은 옷이 ‘편하고, 의자생활이 ‘편리하다. ‘문명개화’는 편리한 것이라는 인식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셋째로는 타자의 시선에 대한 ‘창피’의 논리이다. 소매가 넓은 전통 옷은 외국인에 대해 ‘창피’하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도 ‘창피한 일’이며,⁷³⁾ 농민들의 누추한 가옥 또한 외국에 대해 ‘창피한 일’이다.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개량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넷째는 특히 미신타파를 주장할 때 내세우고 있는 논리인데 ‘究理’—이치를 따지는 사고—의 강조이다. 이상의 논리를 뒤집으면 ‘문명’은 일본의 과거와도 접합이 되는 것이고, 편리한 것이며, 외국인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물을 의심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풍속과 환경을 개량하는 것이 바로 ‘문명개화’인 것이다.

이 책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서양 문명의 이면에 숨겨진 힘의 논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즉, ‘민국공법’을 거론하면서 “민국공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를 논한 것이기는 하나, 그중에 자연히 강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하고 싶은 대로 되기 십상이다. 그 점을 생각하면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른바 지인용(智仁勇)을 갖추지 않으면 문명개화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⁷⁴⁾ 이는 1880년대 이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문명’ 비판의 한 축을 이루게 되는 논점이다.

한편 도쿄에서 출간된 책 중에서 개화본의 으뜸으로 손꼽히는 오가와

73) 모자를 안 쓰는 것은 세계에서든 ‘하국(下國)’의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개화의 나라’에서는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일본에서도 에도시대 이전에는 모자 쓰는 풍습이 있었으므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복고’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양인이 인사할 때 모자를 벗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의문에 “서양은 究理의 나라이므로 뭔가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럴 것이다”라고 하여, ‘究理의 나라’ 서양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加藤祐一, 1967, 앞의 책, 8~9쪽).

74) 加藤祐一, 1967, 앞의 책, 36쪽.

다메지(小川爲治)의 『開化問答』(1874)은 규헤이(舊平)와 가이지로(開次郎)의 문답 형식을 빌려 정부의 근대화 개혁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판에서는 폐번치현, 신분제 폐지, 징병제, 조세문제, 외국과의 교역, 서양교육, 의식주의 서양화 등 제도적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2판에서는 정부와 인민의 직분, 자유, 태양력, 지권(地券)발행, 지폐 발행 등을 다루고 있다. 즉, 정부의 개혁이 곧 ‘개화’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는데, 그 개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 장에서 고찰했던 ‘문명’의 여러 개념들이 동원되고 있다.

우선 신분제 개혁과 관련해서 동등한 ‘인간의 권리’를 설명하고, 정부와 인민의 직분에 대해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방종과 구분되는 ‘자유’를 설명한다. 지권(地券)발행과 관련해서는 사유(私有)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문명개화’로 연결시키는 논리가 흥미롭다. 오가와와는 지금까지의 ‘암흑세계’에서는 토지는 모두 정부 소유로 관념되어 매매가 금지되었으나, 인민의 소지물의 본원을 따지자면 모두 그 사람의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빌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명백한 이치를 모르고 지금까지 토지를 정부로부터 빌린 물건이라고 생각한 것은 “인민이 어리석고 세상이 암흑이었다는 증거”라며, 어리석음과 암흑을 같은 이미지로 포괄한다.⁷⁵⁾ 요컨대 지권제는 “토지 소유의 권리를 견고히 하기 위한 법이며, 사람의 사유권을 견고히 하는 것은 세상을 문명개화의 장소로 나아가게 하는 첫 번째 길”인데, 왜 그런가 하면 사유권의 견고→공부할 의욕 야기→산물 증식→일신의 풍요→세상이 화합

75) 메이지 시대 ‘암흑’의 이미지는 문명=밝음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문명이 밝음(明)과 이어지는 것은 가스등이 문명의 상징물로 손꼽히는 데서 단적으로 잘 드러나며, ‘밝음’은 또 알(知)의 질서와, 시각적으로는 흰색-청결-백인파도 연관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기존의 상복 색깔인 흰색은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나루사와 아키라, 2004, 『일본적 사회질서의 기원』, 박경수 옮김, 도서출판 소화, 76~84쪽).

하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⁶⁾ ‘문명개화’는 산물이 증식하고, 인간이 풍요로워지며 세상이 화합하는 상태로 관념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두 권으로 대표되는 문명개화의 내용은 구체적인 서구문명화, 현재의 용어로 말하자면 근대화의 여러 개혁을 열개로 삼고, 서구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근대적 여러 개념으로 살을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중계몽서 속의 ‘문명개화’, ‘개화’ 개념은 서민을 주 독자로 하는 소신문(小新聞)⁷⁷⁾으로 창간된 『요미우리(讀賣)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기서(寄書)’라는 독자투고란이 있는데, 이 투고란에는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어 그들이 ‘문명개화’ 내지 ‘개화’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엿보게 해준다.

서민들에게 개화는 역시 풍속, 관습의 개량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 예컨대 귀신 쫓기 등 ‘개화’와 반대인 옛 관습은 올해까지만 하겠다,⁷⁸⁾ 미신, 속신(俗信)을 버리고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개화 세상’으로의 제1보,⁷⁹⁾ 미신을 끊지 않는 한 ‘문명개화’는 할 수 없다⁸⁰⁾는 등의 투서가 보인다. 또

76) 小川爲治, 『開化問答』(초판 1874, 2판 1875), 明治文化研究會 編, 1967, 『明治文化全集 第24卷—文明開化篇』, 154~155쪽.

77)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에는 정론(政論)을 위주로 하는 ‘대신문’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속적인 기사를 위주로 하는 ‘소신문’의 두 종류가 존재하였다. 전자는 한문투의 문체에 논설과 정치, 경제, 해외 기사를 주로 실어, 독자는 자연히 어느 정도 한문적 소양이 있는 식자층으로 한정되었다. 이에 반해 ‘소신문’은 논설도 없고, 정론을 거의 실지 않으며, 시정잡사, 화류계와 연예계의 정보를 주로 다루고 소설을 연재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小野秀雄, 1922, 『日本新聞發達史』, 大阪毎日新聞社・東京日日新聞社, 109~110쪽). 바로 이 ‘소신문’의 선구를 이루는 것이 『요미우리신문』이다. 메이지 초기의 신문 상황에 대해서는 박양신, 2004. 4, 「일본 에도 시대의 ‘신문’과 그 근대적 변용—서민세계의 매체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25, 제 3장 참조.

78) 『讀賣新聞』 1875년 2월 23일자 2면.

79) 『讀賣新聞』 1875년 9월 19일자 2면.

80) 『讀賣新聞』 1876년 11월 21일자 3면.

‘자주자유(=자유의 의미)’가 보장되는 것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문명개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투서,⁸¹⁾ 문명개화는 창피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는 내용의 투서⁸²⁾ 등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구습타파에 대해 비판하는 투서도 눈에 띈다. “개화, 개화 귀가 따갑도록 말합니다. 구습을 고치는 것은 몽매한 우리들도 주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하던 것은 뭐든 구습, 불개화(不關化)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예로부터 내려온 것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새로운 것에 야만이 있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개화라는 것은 3천여 만 명이 사이 좋게 무엇이건 의논해서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개화라는 두 글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⁸³⁾ 여기서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개화”라는 의식은 앞장에서 보았던 식자들의 문명화의 목적의식과 통하는 면이 있다.

한편 대다수의 개화본이 문명개화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개중에는 그런 서양화를 지향하는 문명개화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책도 있었다. 보수적인 국제옹호론자 요시오카 노리아키(吉岡徳明)의 『開化本論』은 ‘문명’을 서양 문명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저자는 후쿠자와의 『文明論之概略』에서 논하고 있는 문명은 “구미 각국의 문명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기초의 문명사에서 말하는 개화도 자국의 과거를 말하고 있을 뿐이라며 일본에는 “상고(上古)에 스스로 천연의 문명이 있으니”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⁸⁴⁾ 그는 또 “서양 각국이 개화를 자랑하나 필경 문명의 말류인 물질의 개화이고, 그 본원인 마음

81) 『讀賣新聞』 1875년 9월 10일자 2면.

82) 『讀賣新聞』 1876년 12월 12일자 3면.

83) 『讀賣新聞』 1876년 5월 12일자 3면.

84) 吉岡徳明, 『開化本論』(1879), 明治文化研究會 編, 1967, 『明治文化全集 第24卷—文明開化篇』, 330~331쪽.

의 개화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미개, 야만의 풍속일 뿐”이라며 서양 문명을 상대화시키고 있다.⁸⁵⁾

이처럼 ‘문명개화’가 가장 극성이었던 1870년대 전반을 지나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문명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보내는 논의가 서서히 등장하게 된다.

5. 맺음말—문명 개념의 그 후

지금까지 근대 초기 일본에 수용된 civilization—문명개화, 문명, 개화—개념과 그것이 일반인에게로 전파되어 세속화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쿠자와를 비롯한 식자들에게 근대 초기 일본에서의 ‘문명’은 우선 인류의 발전단계에서 최고위에 위치하는 단계로서 하나의 보편성을 가진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문명’은 지(知)의 진보를 원동력으로 하여 ‘야만’의 단계를 탈각하여 진보하는 과정이며, 달리 말하면 “인간의 안락과 품위의 진보” 상태로서 그 모델은 구체적으로 ‘서양’이었다.

이런 문명 개념은 일반인에게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세속화된다. 우선 세계지리서를 통해 문명은 야만의 대칭개념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문명-서구/야만-아프리카 라는 식으로 시간적 단계가 지리적 공간과 결합된 형태로 인식된다. 한편 대중계몽서 속의 ‘문명’ ‘개화’는 정부의 개혁정책의 홍보적 성격을 질게 띠는 바람에 풍속개량과 근대화 정책이 바로 개화라는 인식을 성립시켰다. 그런 문명개화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문명은 과거와도 접합이 되고, 편리한 것이며, 외국에 대해 창피하지 않게 당

당해지는 것,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상의 근대 초기 문명 개념에서 특징적인 것은 문명이 대단히 긍정적인 가치로서 칭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미 제시된 바이지만 후쿠자와는 문명 상태를 “하늘의 행복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했고, 니시무라는 사회 구성원이 모두 “안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명의 중심인 유럽은 대단히 아름다운 곳으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태평”을 이룬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치다는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문명이 더 진보하면 전쟁도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명’은 분쟁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라는 낙관적인 인식을 피력하고 있다. 근대 초기 현저하게 서양화의 함의를 띤 ‘문명’의 개념이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근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문명’의 폐해는 국내외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1870년대 말부터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명에 대한 비판 담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비판의 방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소위 문명국들의 비문명적=야만적 행위에 대한 비판—제국주의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적으로 드러나는 문명의 폐해에 대한 비판이다.

자유민권 사상가인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는 서구와 미국에 존재했던 노예제를 ‘소야만’으로, 소위 문명국이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식민지화하는 행위나 전쟁을 ‘대야만’으로 부르며 비판하였다.⁸⁶⁾ 국내문제에서도 물질문명에 치우친 결과 야기된 정신문명의 취약에 대한 비판과, 문명의 진전에 따른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그 과정에서

85) 위의 책, 335쪽.

86) 植木枝盛, 『世界大野蠻論』(1880), 明治文化硏究會 편, 1968, 『明治文化全集 第14卷—自由民權篇(續)』, 日本評論社, 71~74쪽.

일본이 섭취한 서양 문명은 어디까지나 물질문명이며, 일본은 정신문명 면에서 그들보다 낫다는 인식이 파생된다.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은 루소의 『학문예술론』(1750)을 『非開化論』(1883)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책은 학문과 예술의 발전으로 인해 덕의가 하고 사회 습속은 타락했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를 조민은 ‘비개화론’이라는 제목으로 의역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일본의 ‘문명개화’를 비판하였다.⁸⁷⁾

한편 사회주의를 일본에 소개한 사카이 유자부로(酒井雄三郎)는 ‘사회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문제’란 부의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된 다수 노동자의 빈궁과 권리문제를 의미하는데, 이런 ‘사회문제’가 발생한 근원은 바로 ‘근세(근대-인용자)문명’의 덕택인 과학의 진보와 기계공업의 발달이 생산력을 높여 부는 증대시켰으나, 그 부가 소수자에게로 편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⁸⁸⁾

이처럼 1880년대 이후 ‘문명’은 메이지 초기에서처럼 인간의 물질적 안락과 품위의 진보를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낙관적인 개념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일본의 ‘문명화’의 진전에 대한 자신감이 일본 자신을 ‘문명’ 측에 세워 중국 및 러시아와 ‘문야(文野)’의 전쟁을 하게 했고, 나아가 ‘동서 문명의 조화’⁸⁹⁾를 꾀할 주체로서 자신을 상정하게 만들어갔다. 이 과정은 종래 인류의 보편적 발전단계의 하나로서 인식되던 ‘문명’이 복수의 문명으로 인식되는 과정과도 병행하고

있었다. 즉 문명은 하나가 아니고, 서양 문명, 일본 문명, 중국 문명, 인도 문명 등 각기 역사 전개 과정을 갖는 복수의 문명으로 인식되어 갔던 것이다.

87)ジャン・ジャック・ルソー(1883),『非開化論』,中江兆民・土居言太郎 訳,日本出版社. 이와 관련해서는 山田博雄, 1997, 「中江兆民における‘文明開化’の一側面(1, 2)―兆民譯『非開化論』とルソー著『學問藝術論』の比較検討を中心に」, 『法學新報』 103-9, 104-1 참조.
88) 酒井雄三郎, 1887. 5, 「『社會問題』と『近世文明』との關係に就きて」, 『國民之』 4. 이와 관련해서는 山田央子, 2006, 「酒井雄三郎における‘近世文明’論と社會主義批判」, 朴忠錫, 渡辺浩 編, 『「文明」・「開化」・「平和」―日本と韓國』, 慶應義塾大學出版會 참조.
89)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1906년에 한 연설에서 비롯됨.

1. 1차 자료

明治文化研究會 編, 1967, 『明治文化全集 第24卷—文明開化篇』, 日本評論社.
 明治文化研究會 編, 1968, 『明治文化全集 第5卷—雜誌篇』, 日本評論社.
 明治文化研究會 編, 1968, 『明治文化全集 第7卷—外國文化篇』, 日本評論社.
 明治文化研究會 編, 1968, 『明治文化全集 第14卷—自由民權篇(續)』, 日本評論社.
 明治文化研究會 編, 1969, 『明治文化全集 別卷—明治事物起原』, 日本評論社.
 福澤諭吉, 1988, 『文明論之概略』, 岩波文庫.
 _____, 1989, 『福澤諭吉選集』 1, 2, 岩波書店.
 內田正雄 編, 1871, 『輿地誌略』 卷一, 文部省版.
 東江學人, 1873, 『文明開化内外事情』初編, 東生龜次郎.
 東華先生 강설, 1881, 『布教泉源』, 敎學部藏.
 須川賢久 譯, 1877, 『萬國地理誌』, 須川賢久藏.
 堀達之助, 1869, 『改正増補英和對譯袖珍辭書』, 藏田屋清右衛門.
 柴田昌吉·子安峻 編, 1873, 『英和字彙』, 日就社.
 ノア·ウエブストル(1885), 『英和對譯辭典』, 早見純一 譯, 大阪國文社.
 小山篤敘編 譯, 1885, 『學校用英和字典』, 小山篤敘.
 島田豊 譯, 1888, 『和譯英字彙』, 大倉書店.
 イーストレーキ(1888), 『ウェブスター氏新刊大辭書和譯字彙』, 棚橋一郎 譯, 三省堂.
 山口造酒·入江祝衛 編, 1907, 『和英新辭典』, アーサー·ロイド 譯, 賞文館.
 大槻文彦 編, 1889~1891, 『言海』, 大槻文彦.
 金澤庄三郎 編, 1907, 『辭林』, 三省堂.
 郷正明, 飛田良文 編, 1986, 『明治のこば辭典』, 東京堂出版.
 『讀賣新聞』

2. 연구서

나루사와 아키라(2004), 『일본적 사회질서의 기원』, 박경수 옮김, 도서출판 소화.
 스키 사다미, 2001, 『일본의 문화개념』, 김채수 옮김, 보고사.

林屋辰三郎 編, 1979, 『文明開化の研究』, 岩波書店.
 柳父章, 1995, 『文化』, 三省堂.
 木村毅, 1954, 『文明開化』, 至文堂.
 富田正文, 1992, 『考證福澤諭吉』 上, 岩波書店.
 飛鳥井雅道, 1985, 『文明開化』, 岩波書店.
 成田龍一, 2003, 『近代都市空間の文化經驗』, 岩波書店.
 松尾正人 編, 2004, 『明治維新と文明開化』, 吉川弘文館.
 奥武則, 1993, 『文明開化と民衆: 近代日本精神史斷章』, 新評論.
 井上勳, 1986, 『文明開化』, 敎育社.
 丸山眞男, 1986, 『文明論之概略を讀む』 上, 岩波書店.
 戸澤行夫, 1991, 『明六社の人びと』, 築地書館株式會社.
 ひろた·まさき, 1980, 『文明開化と民衆意識』, 青木書店.
 P. J. Bowler(1995), 『進歩の發明』, 岡崎修 譯, 平凡社.

3. 연구논문

박양신, 2001. 2,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에 있어서의 문명과 독립」, 『한양일문학』 9.
 함동주, 2004, 「근대 일본의 문명론과 그 이중성—청일전쟁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근대 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渡辺浩, 1998, 「‘進歩’と‘中華’—日本の場合」, 『アジアから考える—近代化像』, 東京大學出版會.
 山田博雄, 1997, 「中江兆民における‘文明開化’の一側面(1, 2)—兆民譯『非開化論』とルソー著『學問藝術論』の比較検討を中心に」, 『法學新報』 103-9, 104-1.
 山田央子, 2006. 3, 「酒井雄三郎における‘近世文明’論と社會主義批判」, 朴忠錫, 渡辺浩 編, 『「文明」·「開化」·「平和」—日本と韓國』, 慶應義塾大學出版會.
 小川原正道, 2000. 3, 「敎部省民衆敎化政策に關する一考察—明治5·6年, 東京を中心に」, 『法學政治學研究』 44.
 神山四郎, 1986, 「ギゾーとバククルの間—『文明論之概略』の歴史哲學」, 『福澤諭吉年鑑』 13.

前田勉, 2007. 3, 「津田真道の初期思想」, 人文社會科學 硯, 『愛知教育大學研究報告』 56.

中島滿洲夫, 1968. 11, 「内田正雄著『輿地誌略』の研究」, 『地理』 13-11.

増野恵子, 2006. 3, 「見える民族 見えない民族—『輿地誌略』の世界観」, 『版畫と寫真—19世紀後半出來事とイメージの創出』, 神奈川大學 심포지움보고서.

川村博忠, 2004. 1, 「明治初期の文明開化と地理教育」, 『エリア山口』 33.

Abstract

The Acceptance of the Concept of Civilization in the Early Phase of Modernization and Secularization in Japan

Yangshin Park(Hallym Academy of Sciences, Hallym University)

■ Key Word : Civilization, Bunmeikaika, Hukuzawa Yukichi, Meirokusha, Yochisiryaku(輿地誌略)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the adoption, in the early period of Japanese modernization and secularization, of the concept of civilization originating in the West, and how the use of the translated term spread to the common peop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civilization and modernization of Japan is therefore addressed.

First of all, it considers how the word 'civilization' was translated into Japanese; while civilization was initially translated as 'Bunmeikaika(文明開化)', 'Bunmei(文明)' and 'Kaika(開化)', 'Bunmei' eventually overwhelmed the other terms, and settled in Japanese society.

Also examined is the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civilization by Japanese intellectuals, particularly Hukuzawa Yukichi and fellow Meirokusha members. Intellectuals, including Hukuzawa, recognized that civilization is the highest stage in the development of human history, and has its own universality. In addition, according to them, civilization is a process of advancing out of savageness, with

the advancement of intelligence for energy. Furthermore, it centers on the advancement of human comfort and dignity. Eventually, their purpose, concretely speaking, is to aim toward the Western model.

This concept of civilization is secularized further as it spreads to the common people. Through the textbook of the world geography, civilization is regarded as the opposite concept of savageness. And the formula is formed that civilization is to the West as savageness is to Africa.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civilization included in the book for popular enlightenment is filled with the contents informing the government's reform policy. Therefore, it implies that the amelioration of customs and the policy of modernization are equal to 'civilization.'

The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the concept of civilization in the early period of Japanese modernization is that it is highly appreciated as a very positive value. It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civilization at that time supported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by which Japan had propelled to establish modern nation, with its target the West.